

제 11 장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사 40:8).

이 장은 세 개의 구절과 세 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두번째는 베드로 전서 1장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세째는 이사야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우선 먼저 시편 119:89절로 눈을 돌립시다. 이 시편은 지금까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 장은 176절을 가지고 있으며, 두 절을 제외한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시이며, 감사의 시이며,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히브리어 나차브(נצב)는 “결정된, 확립된, 고정된”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 위에 전달되기 이전에, 하늘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쓰여진 이 책은 단지 이미 하나님이 하늘에서 쓰셨던 것의 복사인 것입니다.

전체 시편이 이런 기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주의 증거를...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152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
하리이다(160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89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시다

워싱턴 시에는 표준 사무소 본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저울과 자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손상되지 않게 간직한 표준을 본 뜬 것입니다. 그 사무소에는 표준 인치, 표준 피트, 표준 야드, 표준 갈론, 표준 파인트, 표준 밀리미터, 표준 준 밀리미터, 표준 미리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저울과 자는 워싱턴에 있는 사무소에 표준치를 갖고 있으며 모든 것은 그 표준에 의해서 판단 됩니다.

워싱턴에 있는 해군 관측소에는, 매일 12시에 천문학적인 관찰을 통해서 수정되는 정밀 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간이 미국에 있는 모든 시계들에게 전달됩니다. 미국 전역의 시계 바늘에 표시된 시간은 워싱턴에 있는 해군 관측소의 완전한 최고의 모범을 복사한 것, 복제품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완전하고, 고정된, 하늘에 있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조품일 뿐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없이 거기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흠없이 틀림없이 보존될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구약성경 속에는 39권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구약 성경 속에는 39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첫 세기 동안에 신약성경에는 27권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신약 성경에는 27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흠없이 오류없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명령에 의해서 지

켜지는 것입니다. 모든 점과 모든 획이 수천 년 동안을 그렇게 해 왔던 것과 똑같이 지켜져 왔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뒷 면에서 시작해서 앞 면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매 페이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갑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왜 이렇게 거꾸로 읽느냐고 물어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누가 그것을 먼저 시작했습니까?” 히브리어 단어들 한 페이지에 한 단씩, 매 페이지마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아무런 이유없이, 페이지들이 여러 개의 단으로, 유대인들이 “벽돌쌓기”라고 부르는 형태로 나뉘어 졌습니다. 그 후로는 세계에 있는 모든 히브리어 성경이 수천년 동안 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성경을 알기 시작한 이래로, 모든 성경은 그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글자 수가 계산되었고, 모든 책의 끝에는 합계가 산출되어 있어서 옮겨 적는 사람이 자기의 일을 바르게 했는지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은 예수께서 자기 손에 들었던 성경과 점 하나, 획 하나, 페이지 하나도 틀리지 않는 같은 성경입니다.

약 6년 전(1947년)에 사해에서 멀지 않은 쿨란 동굴에서 몇 개의 두루마리가 들어 있는 오래된 항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사본들은 하박국과 이사야의 완전한 사본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더 많은 사본들이 발견 되었고 단편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 100가지 정도가 성경의 사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히브리어 구약 성경보다 적어도 1,000년은 앞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대의 사본들을 조사했을 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어떤 것보다도 1,000년 이상된 것들인데도, 그것들이 사실상 현재의 히브리어 성경을 출판하는데 사용된 맛소라 본문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내면의 말씀, 우리들의 최종적인 권위는 수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 기록하신 것이며 거룩한 그 말씀의 사본이 제단에 들려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 세기를 통하여,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무엇인가를 첨

가시키려고 애써 왔습니다. 1545년 트렌트 회의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책 속에 모든 외경 전서를 포함시키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당신의 책의 일부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성경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2,000년 전에도 39권이 있었고, 오늘도 39권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27권의 책에도 더 추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신들과 복음서들과 묵시록들을 썼지만, 이것들 중의 어느 것도 신약 성경 27권에 포함되지 않았읍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나무에 달린 열매처럼 시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가 선언한 것과 꼭 같았읍니다. 가진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 넣으시고 영광 중에 흠없이 보존하신 원래 성경의 복사품인 것입니다.

썩지 않을 말씀

두 번째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서, 베드로전서 1:23-25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서 사도는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40장에서 한 절을 인용합니다. 즉,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8절).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적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프다르테스[φθαρτης])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아프다르투[ἀφθάρτου]) 씨로 된 것이

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도는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견디고 영원히 설 뿐만 아니라, 또한 찌지 않고 남아 있으며, 흠없이 지속되고, 잘못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수 천 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보호하시고 살피사 그것이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원본의 복사품으로서 다가오게 해주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성육하신 말씀을 헤롯이 칼로 예수를 죽이려 할 때 지키셨던 주의 성령이 여러 세기의 변천을 겪으면서 당신의 기록된 말씀을 지켜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 성육하신 말씀을 찌지 않게 지키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이 바로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며, 주권자, 전능자, 이 거룩한 말씀, 성경을 찌지 않게 지켜 오셨고 또 앞으로 지키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즉 당신의 특별한 뜻으로 믿는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고 자기의 성도들에게 구원을 보장하시는 은혜는 오늘날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회합이나, 어떤 집회나, 어떤 성직자 모임도 성경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적적인 일들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인쇄술이 발달된 것은 예수님 이후 약 1,500년 쯤 지나서였습니다. 그 때까지 내내 말씀은 손으로 복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잘못없이 보존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위의 하늘에 있는 원본과 꼭 같이 지켜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여러 개 사본들을 통해서 간단히 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데 실수를 했다면, 그것과 대조할 수 있는 수 천 개의 다른 사본들이 있어서, 어떤 잘못이든 알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흠없는 말씀을 기록한 수천 가지의 사본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헤로도투스가 역사를 저술한지 약 1,500년이 지났는데,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본은 단 한 권입니다. 플라톤이 그의 영광스러운 고전들을 저술한 지 약 1,200년이 지났는데, 단 한 권의 사본만 존재합니다. 오늘날에는 헬라의 인류학 문서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소포클레스와 유피피데스, 투키디데스나 버질, 그리고 키케로의 글들을 단지 몇 편씩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복사한 사본은 수천 가지가 있으며, 가장 정확한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서로 서로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헬라이어 학자 중 한 사람이 신약성경의 헬라이어 고대본은 약 4,105 가지가 넘는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약 15,000에서 30,000 가지의 고대 라틴어 역본 성경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약 1,000개의 고대역(다른 언어로 된 번역 성경)이 있으며, 그 밖에 그들이 고고학적인 유적지에서 매일 발견하는 파피루스와 교회 교부들의 글에서 발견 되는 인용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수 천종류의 사본들을 비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감을 주셨던 원본을 찾아내기는 쉽습니다. 비록 어떤 복사자가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른 복사자에게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설교자가 신앙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지에 진실한 또 다른 설교자를 일으키시는 것과 같습니다. 설령 한 교회가 성경을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복음에 진실한 또 다른 교회를 지키십니다. 만약 한 교단 전체가 신앙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교단을 계획하십니다.

이방인과 교회의 박해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세번째 단어는 이사야 40:6-8에서 발견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와 기운이 그 위에 붙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야콥) 하라.

야콥 (יַעֲקֹב)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기서 “서리라”로 번역되었습니다. 야콥이라는 히브리어는 “일어나다”는 뜻이며, 무엇인가 넘어지고, 부서지고 뒤꿈치로 밟혀도 다시 일어선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의 의미는 지상의 짧은 생을 사는 존재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깨어지고, 박해받고, 멸시받고, 파멸하려는 의도들 가지고 공격받더라도, 일어나고, 서며, 영원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한 모든 박해 세력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성경을 대적하는 일에 열심을 바쳐왔습니다. 저는 그들 중에 세 사람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저는 한 이방인의 박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없애 버리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배경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난 많은 이방인 박해자들 중에서, 저는 한 사람, 디오클레시안(Diocletian)의 박해를 들겠습니다. 디오클레시안은 세계가 지금껏 아는 한 성경과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A.D. 303년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디오클레시안은 세상의 모든 성경은 없어져야 하며, 성경을 소지한 사람은 교수형을 당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무섭고 잔인한 공격은 아주 효과적이어서, 약 일 이년이 지나자 그 박해자들은 자기들이 지구 상에서 성경을 싹쓸어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만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되어 자신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디오클레시안은 그리스도교인들은 책을 믿는 사람들이며, 만약 책만 없애 버리면 신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

서 그는 그 책을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전멸 작전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서 불타 없어진 성경책 위에 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이와같은 당당한 라틴어 문귀를 써넣었던 것입니다. *Extincto nomine Christianorum* (엑스팅토 노메네 크리스티아노룸,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사라졌도다). 그리스도교인들은 피 속에 거꾸러 지고, 불에 타고,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무자비한 디오클레시안을 계승했습니까? 콘스탄틴 대제였습니다! 그는 비록 자기가 로마 제국의 황제이지만 스스로 그리스도교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로마군의 군기와 행군하는 병사들의 방패에서 이교도적인 상징들을 제거하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으로 부착시켰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A.D. 312년에 벌어진 것입니다. 디오클레시안이 불타서 없어진 성경책 위에 기둥을 세운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리스도교인이라는 이름이 없어졌노라고 말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 년도 안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두번 째의 교회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지독한 대적자가 교회 내부의 성직자이면서 성경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지닌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의 평생동안 성직자였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나는 성경을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 위클리프가 이 성경을 영국민의 언어로 제시하려고 하자, 그는 사형 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무서운 종교 재판이 그의 생전에 열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종교 재판관들은 그의 시체를 파내어 그것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성경의 사본을 가지고 있다기 발각되면, 그 성경 사본은 그의 목에 목걸이처럼 묶여서 기둥 위에서 공공연하게 화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요한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국민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의 시체는 불에 태워졌고, 그 재는 스위프트 강물에 뿌려

졌습니다. 그러나 스위프트 강은 아본강으로, 아본강은 세베른 강으로, 세베른 강은 바다로 흘러 갔으며, 그 바다는 전 세계 여섯 개 대륙의 해안을 적셨던 것입니다. 바닷물이 닿는 곳에는 어디나 요한 위클리프의 재가 운반되었고, 그곳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탄생되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현대 합리주의의 공격

성경에 대한 최후의 공격, 즉 우리의 생애 동안 계속된 공격은 모든 공격 중에서도 가장 지독하고 맹렬한 것입니다. 그것은 현대 합리주의의 공격입니다. 그 대표자는 벨하우젠(Wellhausens)과 바우어(Bauers), 그리고 슈트라우스(Strausses)와 같은 튜빙겐 학파들인데, 그들은 지구 전체를 휩쓸며 학문과 연구라는 명목으로 이 성경을 비웃고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기적들을 비웃습니다. 그들은 이 책이 민담, 동화, 신화, 그리고 고대 민족들의 전설모음집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것들은 헬라나 페르시아, 힌두,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문학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이집트의 사자의 서』(死者의書)나 힌두교의 『바가바드 기타』(Bahgavad Gita) 이상의 영감받은 책일 수는 없다고 공언합니다.

합리주의의 독이 너무 치명적이고 너무 무자비하게 우리의 학교와 대학과 신학교와 설교단에 침식해 있어서 마치 1788년에 죽은 비그리스도인 볼테르의 예언이 실현된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세대 이후 100년이면 성경은 골동품 수집가에 의해 귀중하게 취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구 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때때로 무신론자인 흠이 생각했던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교의 황혼을 본다.” 그러나

볼테르의 예언이 있던 시대로부터 1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볼테르의 책 초판이 파리의 시장에서 11센트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영국 정부는 티센도르프(Tischendorf)에 의해서 시내산 수도원에서 발견된 시내 사본(Codex Sinaiticus)을 러시아 황제에게 오십만 달러를 치르고 샀던 것입니다! 흠이 “나는 그리스도교의 황혼을 보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대단히 혼동했던 것입니다. 그는 석양과 새벽녘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년 이상된 책을 읽어 보았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버질(Virgil)을 읽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키케로를, 어떤 이들은 시이저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은 이유는 여러분이 다닌 학교에서 요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 천년 된 책을 읽고 있겠습니까? 누가 심지어 종교 서적을 읽겠습니까? 더구나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가버린 종교서적을 누가 읽으려 하겠습니까?

어떤 책이 하나의 언어로 쓰여져서 다른 언어로 번역되지 못한다면, 그 책이 널리 유포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어로 쓰여진 책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 이외 지역에 널리 유포될 기회가 없습니다. 터어키의 위대한 작가가 누구입니까? 브라질에는 누구입니까? 아프가니스탄이나 중국의 작가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그러한 국가들에 있어서 작가들에 관해 아무 것도 모릅니다.

성경은 얼마나 오래 전에 쓰여졌습니까? 수십세기 전입니다.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였습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고대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둘 다 상대적으로 수천 년 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여러 언어로 번역된 성경은, 전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부족들 사이에 점점 더 유포되고 있습니다.

디오클레시안은 이 영광스러운 하아프의 줄 가운데 한 줄도 끊지 못했습니다. 합리주의자들은 이 변함없는 계시로부터 한 단어도 불

신앙으로 끌어 내리지 못했습니다. 볼링브로커스(Bolingbroke)와 흄(Hume) 그리고 페인(Paines)과 볼테르(Voltaires)는 성경의 생명을 한 시간도 단축하지 못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며, 영원히 견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과 소망과 운명을,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고 흄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보여 줍니다. 그와 같이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